

시편의 묵상(39편) - 병상에서 배우는 인생레슨(시편39:1-13)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다윗은 지금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라는 표현으로 보아 죽음을 직전에 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지금 다윗은 나이도 들은 데다 병까지 얻어서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언제든지 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병을 통해 유익을 얻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병상에서 깨달은 인생의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1. 인간은 한 뼘도 안 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4-5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 뿐이니이다.(셀라)" 다윗은 병상에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깨닫게 된다. 그리고는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병상에 누이시고, 다윗에게 들어가 있는 힘을 빼내고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듬으셔서 쓰신다. 야곱의 경우는 그의 자아가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을 부러뜨려서라도, 자존심을 박살내시고 그를 변화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상에 누이실 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시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힘도 빼시기 바란다. 병상에서 일어서는 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2.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6-7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둔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들은 재물을 얻거나 지위를 얻기 위하여 옆 사람을 밀치고 끌어내고 요란법석을 떠난다. 그러나 실상은 그림자 같은 존재요, 한 숨과 같은 존재요, 한 뼘에 지나지 않은 존재라는 거다. 그렇게 아등바등 대면서 재물을 손에 쥐었는데, 결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다. 솔로몬 왕도 동일한 고백을 했다(전1:14). 다윗은 병상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시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나의 질병, 나의 문제를 맡겨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비결이다.

3.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12-13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말로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구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영적으로 죄 가운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영육 간에 구원을 베풀어주신다.

시편의 묵상(39편) - 병상에서 배우는 인생레슨(시편39:1-13)

1. 마음 열기 - 내가 무기력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2. 경배와 찬양 - 찬 471장, 약한 나로 강하게

1. 약한 나로 강하게 - 가난한 날 부하
 2. 내가 -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
 3. 깊은 -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켜 세웠

게 눈먼 -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네 이제 -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 - 산 나 호 -- 산 - 나 죽음 당한 어린 양 호 -

산 나 호 -- 산 - 나 예수 - 다 시 사셨네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본문과 말씀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본문과 주일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 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2) 다윗은 질병으로 인해 죽음 직전에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죽음 직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질병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 때 깨달은 것이나 느꼈던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 (3) 다윗이 깨달았던 1)인간은 한 뼘도 안 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과 2)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3)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중에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사역나누기

- (1) 성령 충만한 목장과 돌봄이 필요한 목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 (3) "차별금지법(동성애 입법) 제정 반대 대전시민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 26일(주일) 오후 3시 대전시청 앞 / 교회출발 오후 2시